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10

태양의 노래

최민순 신부 옮김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옵고,

호올로 당신께만 드러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중에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로 해 낮이 되고 그로써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나나이다, 지존이시여!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빛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써 기르심이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출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66

내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99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옵소서.
그러서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내 주여, 누나요 우리 어미인 땅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 줍니다.

당신 사랑 까닭에 남을 용서해 주며,
약함과 괴로움을 견디어 내는 그들에게서
내 주여 찬양받으사이다.

평화로이 참는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이시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을 죄 짓고 죽는 저들에게 양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짝 없이 거룩한 뜻 좇아 죽는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이다.

“태양의 노래”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옛 이탈리아어로 쓴 작품 중에 남은 유일한 작품으로, 그리스도교 문학에서 중요한 걸작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문학의 초기 작품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프란치스코의 애정과,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자매로 보는 프란치스코의 초월적인 영성이, 모든 피조물을 향하는 이 사랑의 교향곡 안에 담겨 있습니다.



66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이다.

99



땅의 노래

금미경 베로니카.FMM

내 주여!

우리가 버리는 과일껍질과 야채를 받아들이며 기름진 퇴비를 만들어 주는 땅의 겸손과
온갖 야채를 자라게 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생명의 나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무상성이
땅과 자연 안에 있으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혼자가 아닌 자매들과 함께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하고,
땀 흘려 땅을 일구며 생명을 기르고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음식찌꺼기를 밭으로 보내어 흙으로 만들고
건강한 야채를 가꾸며
빗물을 받아 야채와 화초를 돌보는 마음과 지혜를 주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수세미를 길러 수세미 꽃에 벌이 돌아오게 하시고
수세미 열매를 잘라 기침하는 자매들을 위해 가을 햇볕에 말리며
누군가를 위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루의 시작에서 만나는 저의 작은 기쁨은 비밀의 밭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과일껍질과 커피 찌꺼기를 담아 수녀원 뒤쪽에 있는 밭으로 갑니다. 커피 찌꺼기는 성장을 위해 영양분이 필요한 야채들에게 뿌리고, 과일껍질은 햇볕이 많이 들지 않은 그늘진 곳에 땅을 파서 흙과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기쁨의 맛을 아는 한 수녀님도 조용히 곁에 오셔서 밤새 자란 무, 아욱, 쪽파, 그리고 여러고 수줍게 고개 내민 당근 씨를 살피시며 흙을 덮어주고 물도 주십니다. 가지와 제법 자란 아욱도 가지런히 잘라 소쿠리에 담아 부엌에 들여 놓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심는 야채들은 조금 다르지만 수녀님과 저는 이 작은 행복을 아침마다 밭에서 맛보고 즐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맛본 작은 행복에 대해 노래한 제 마음의 찬가를 “나눔” 가족들에게 나누어 봅니다.

“나눔” 가족들도 텃밭이 없다면 오늘 작은 화분 하나 마련하셔서 돌보고 가꾸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까운 가족, 이웃, 직장동료들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워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머리로, 눈으로, 또 말 보다는 화초를 가꾸고 밭에 야채들을 기르면서 많이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이 주고, 주기 싫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초가 물이 필요한지를 잘 살피고,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때에 주어야 잘 자라더군요.

물을 주는 것은 저이지만 기르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이번 가을에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화초를 키우며, 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며, 하느님을 찬미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노래”를 저와 함께 바쳐보시면 어떨까요?

또또와 복실이

이영주 스텔라

또또와 복실이는 어릴 때 키우던 고양이와 개 이름이다. 또또는 요즘말로 길냥이라고 하는 도둑고양이였다. (발음주의! ‘로또’ 아님!) 어느 늦은 밤, 우리 집 부뚜막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에게 들켰다. 어머니는 이 고양이가 다시 가출할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애지중지 기르셨다. ‘호박이 넝쿨째’가 아니라 예쁜 고양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말이다. 또또의 호피무늬를 보고 어머니는 “옷이 참 예쁘다”고 하셨다. 그런데 또또는 사고뭉치였다. 현관에 벗어둔 신발을 물어뜯거나 부뚜막에 놓아둔 음식에 입을 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쿠! 또! 또! 하지 말라는데, 또 저런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름이 ‘또또’가 되었다.

복실이는 털이 복실복실하다고 복실이인데 참 어질고 순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삼촌네 회사 마당으로 들어온 것을, 역시 동물을 좋아하시는 삼촌이 애지중지 하며 회사 마당에서 길렀다. 그러나 퇴근 후 혼자 남아야 하는 복실이가 불쌍한 나머지 결국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 (삼촌네 집은 아파트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그리하여 개와 고양이가 우리 집 마당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마당이라야 손바닥만 한 공간.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라 하지만, 할 수 없이 한쪽 모퉁이에 또또와 복실이 집을 나란히 붙여 놓았다. 그런데 둘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 때는 사료 같은 건 없었고, 우리가 먹고 남은 밥을 주었다. 또또는 자기 밥은 놔두고 복실이 밥그릇을 넘보곤 했다. 그런데도 복실이는 그런 또또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심지어 자기 밥을 먹고 있는 또또가 귀엽다는 듯 머리를 핥아 주기 까지 했다. 둘은 가끔 어울려 장난도 치고, 복실이 배에 또또가 기대어 누워있기도 했다. 또또가 그 꼬꼬마한 혀로 복실이의 긴 주둥이를 핥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어느 날은 또또가 보이지 않아 애타게 찾았더니 복실이네 집에서 둘이 같이 고개를 쭉 내밀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분명히 복실이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었다. 복실이가 입을 벌리면 또또는 그 안에 쭉 들어갈 정도였다. 한입만 베어 물면(-_-;) 끝장일 텐데 복실이는 그러지 않았다.

이 둘을 생각하면,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가 아니라 **'힘을 포기함'**으로써 오는 것 같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또또가 복실이를 이길 재간은 없다. 어차피 능력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힘, 권력, 돈, IQ, 심지어 외모까지도. 이 차이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도 한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힘이 세고 약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등등. 이러한 차이가 처음부터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야 한다. 아래로, 아래로.....

자기 밥그릇을 열심히 핥고 있는 또또를 내려다보며 복실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실이와 또또의 공생(共生)이 많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9월 1일 ~ 9월 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웅회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병수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성용	김성원	김수경	김수자세실리아	김순철	김시윤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순	김영옥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회	김재식	김재욱	김정매(박치현)	김정웅(김명신)	김정주	김종연
김정혜(정구충)	김주옥	김준희	김지혜	김진미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욱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욱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유리	노정애	당효준	류순자	명영희	문성식 민정웅 박노성
박노성	박라희(임영희)	박말순	박민선	박병주	박성근	박성길(정은아)	박성현
박성준도미니꼬	박수경	박순옥	박원서	박윤실	박은희	박재용	박정선 박정식
박정순(임현서)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향연	박현희	박홍권박화자	박효정
박희순	방웅	방진	배인호	배철희	백성대	변태식	빛소금이티오 서덕순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석상령	성상모	성영주	인후작은형제
소재록	손순덕	손윤희	손은주	송비아	송순이(우리)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승일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심현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복명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ENG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영재	유은정
유정운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유희숙프란치스	육동배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데보라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이광희	이기향	이기혁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혜
이명순(이선영)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상호요셉	이성엽	이연신
이성호(조봉례)	이연재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은주	이인동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인숙로사	이정란(최윤)	이정숙테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소피아	이종옥	이준우	이창석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임승욱
임도원(임영희)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표	장원태 장현아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명국	정미영 정복순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수인	정숙자	정연화	정영숙	정옥희 정재영 정진명
정재훈(정지호)	정진숙	정혜경	정혜숙	플로라	정희파키스탄	조국제	조근미
조남섭	조명숙	조봉례마리아	조상위	조석금	조수미	조재호	조정희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미라	최미양	최병부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연희 최영숙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인석국민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최희선	추수옥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인숙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민선	홍민희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